

박현일의 색채 인문학 188 보라색의 모든 것

정신적 혼란 진정맨 연보라색 옷 도움

웰스(Wells, N. A.)는 색채를 보았을 때 연상되는 분위기를 연구하였다. "마음을 가장 느그러뜨리는 색은 보라와 자주이다."

보라색은 우아하면서도 고상한 느낌을 주고, 동시에 외로움이나 슬픔을 연상시키며, 환상의 세계로 빠져들게 하는 작용을 한다.

따라서 정신적 혼란을 진정시키고 싶을 때 연보라색 옷을 입으면 도움이 된다. 특히 보라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성격의 보완적 안정을 위해 파란색을 좋아하도록 노력하는 게 좋다.

보라색은 색채 심리에서 신비스러운 느낌을 주며, 망상적인 사고를 나타낸다. 이 색은 슬픔과 우울, 숭고함, 위엄의 충만한 느낌을 주고, 그뿐만 아니라 마음을 진정시켜주며, 특히 심장 폐혈관에 영향을 미친다. 보라색은 감각과 정신, 감정과 이성, 사랑과 체념으로 연결되어 있다.

보라색의 긍정적인 이미지에겐 신비스러움, 고상함, 고귀함, 명상적, 독창적, 관능, 여성적, 우아함, 충성, 권력, 귀족, 위엄, 부, 창조, 지배력, 유행을 나타낸다.

부정적인 이미지에겐 우울함, 슬픔, 죽음, 오만함, 비하, 애도, 허영, 폭력, 고독, 질투, 예민함, 퇴폐, 타락을 나타낸다.

부정적인 면에서 볼 때, 보라색은 속물근성, 허세, 속임수에 사람을 무방비 상태로 만든다. 이 색은 현재 억압받는 잠재적인 경향을 상징한다.

19세기 독일의 천재적 음악가인 리하르트 바그너(Richard Wagner)는 보라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보라색 벨벳 휘장으로 장식된 방에서 그의 가장 위대한 작품을 작곡했다."

Table with 2 columns: Color (당신, 검정, 갈색, 보라, 파랑, 분홍, 노랑, 초록, 빨강) and Description of personality traits and relationships.

케이스(Cayce, Edgar)는 색채 심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연구하였다. "남색과 보라색은 종교적 경험을 갈구한다."

1948년 스위스의 심리학자인 막스 루셔(Max Luscher)는 색채 테스트를 처음으로 만들어 발표했으며, 그는 8가지 색채와 감정 영역을 관련시켰다. "보라색은 허영과 자아 중심적인 태도를 상징한다."

1948년과 1971년에 막스 루셔는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색채 테스트를 하였다. "임산부들이 가장 좋아하는 색은 보라색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 원인을 임신과 관련된 호르몬의 변화에서 찾았다."

웁스너(Wexner, L. B.)는 색채가 사람들의 기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 남학생 46명과 여학생

48명을 대상으로 기분을 나타내는 단어와 어떤 색채가 연상되는지 조사하였다. "이 결과 일정한 색채는 일정한 기분과 관련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 흥분과 자극, 보호와 방어에는 빨간색, 갈색, 파란색, 검정색, 보라색 순으로 나타났다."

2005년 컬러와 브랜딩 컨설팅회사 하츠 대표인 컬러 컨설턴트 다카사카 미키(高坂美紀)는 색의 에너지를 이용한 컬러테라피 10가지를 권유하였다. "보라색은 스트레스를 덜어주고 직감력을 향상시킨다."



문화예술 기획자/철학박사·미학전공

전남 '고독사 제로 정책'의 사각지대



최재수첩 최항지 정치부 기자 orchid@jnibo.com

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위주로 고독사 정책이 맞춰져 아쉬움이 남는다. 이같은 사각지대는 최근 전남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행정상의 결점으로 고스란히 드러난다. 전남도는 지난해 고독사 고위험군을 자체적으로 발굴해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세우겠다고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자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도내 고독사 고위험군은 모두 1969명이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사상 허점이 곳곳에서 눈에 띈다.

전남에서 홀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고독사 사망자수를 조사했다. 그 결과, 5년간 매년 고독사가 증가한 곳은 전국에서 대전, 경기 그리고 전남 3곳 뿐이다. 전남은 2017년 인구 10만명당 4.1명에서 2021년 6.8명으로 고독사 사례가 매년 늘었다.

역설적이게도 전남도의 '고독사 제로' 정책은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됐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모시기 위해 자원봉사자로 꾸려진 '지킴이단'이 돌봄대상을 직접 찾아, 어르신들에게 안부도 묻고 안전도 확인하는 정책이었다. 지킴이단과 독거노인의 매칭은 거의 1대1 수준으로 전국에서도 모범 사례로 꼽혀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우수 정책으로도 꼽힌 전남도의 고독사 제로 정책과는 반대로 도내 고독사가 꾸준히 증가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전남도의 고독사 정책이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노인 위주의 정책인데다, 기존 복지 정책의 대상자를 중심으로만 사업이 이뤄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2021년 고독사의 발생 현황을 살펴봤더니 고독사 비율 중 50대 남성 이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전남도의 고독사 현황도 이와 비슷했다. 전남도에서 홀로 세상을 떠난 고독사의 비중은 50대와 60대의 비중이 각각 30.6%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제일 높다. 이어 70대 (12.9%), 40대 (11.3%), 80대 이상 (5.6%), 30대(4.8%) 순이다.

전남도의 고독사의 정책도 50대가 필

가장 먼저, 고독사 고위험군을 홀로 사는 노인으로 한정해서 살펴봤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또 기존 행정상의 관습대로 노인 기초수급자 대상으로만 고위험군을 선별하는 등 한계를 드러냈다. 일부 시·군은 '자체조사 결과 고독사 고위험군이 없다'고 판단한 것도 전남도의 고독사가 늘고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사례와 간극이 커, 조사 자체에 대한 신뢰성에 물음표가 찍힌다.

고독사는 1인 가구의 증가와 여러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연령 등에 관계없이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증가하는 고독사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관리계획을 세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독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복지시스템의 부재와 복지 사각지대를 꼽는다. 전남도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고독사 고위험군 중 사각지대는 없는지 재차 살펴보고 복지 안전망을 촘촘하게 짚어나갈 때다. 최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단체'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에게 지자체의 실질적 권한 확대를 주장하면서 한 말이다. 진정한 지방정부로 거듭나기 위해선 현 복지 시스템에 허점이 없는지 촘촘하게 살피고 구멍을 메워 나갈 때 도민이 체감하는 지방정부가 될 수 있다.

Advertisement for '지역신문발전기금' (Local Newspaper Development Fund) with a photo of a newspaper and text: '호남 유일 18년 연속 선정 신뢰할 수 있는 신문 전남일보'

Large advertisement for Lotte Cinema (롯데시네마) featuring movie posters for '퀵메이니아' and '카운트', and a list of 9 theaters with showtimes.

Advertisement for Bukgyodang Han-yak-bang (복교당한약방) featuring health products and services. Text includes: '보약, 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북교당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주문판매)', '미세먼지(기관지 보호) 예방식품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5만원', '무릎 관리 / 활기찬 삶! 산수유두충 60포 ▶▶ 12만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 062)369-9227'.